

한국 거주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애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 F. Schütze의 생애사 연구를 중심으로 -

이 효 선¹⁾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본 연구는 이주노동이 청년기의 전환기로서 어떤 성격을 가지며 생애발달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형성한 그들의 전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애발달의 경험을 재구성하여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F. Schütze의 즉흥 이야기식 인터뷰(Stegreiferzählen narrative interview)를 조사도구로 하여 4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생애발달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2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Eckfall Analysis)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대상자가 직접 구성한 삶의 경험을 연구자가 구성한 후, 각 사례의 최소·최대의 비교에 의해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재구성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한국에서 적극적인 적응을 하고 있었지만 본국과 타국의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 신념, 가치관 등에 대한 의문 제시가 생략된 채 동화적인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 속에 잠재된 단일문화 지향적인 관점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방안으로 개인과 집단이 서로 상호 연관 되어지는 과정과 통합을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외국인 노동자, 질적 연구, 생애사 연구, 생애발달, 상호문화주의, 사례연구

* 본 논문은 2008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부교수 (E-mail : hyoseon@kangnam.ac.kr)

I. 들어가는 글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와 발달을 추구한다. 특별히 신체와 인지의 변화로 시작되는 발달은 점차 확대되는 사회적 관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타인의 보호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개인으로 발달하게 된다. 의존에서 자율로의 발달은 인간의 생애주기 중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가 되면서 그 변화의 정점을 이루며 성인이라는 독립된 주체로 발달하게 된다. 이처럼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청년기는 사회적 역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고 고민하는 시기이다(Arnett · Tanner, 2006). 또한 개인의 목표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Armon, 1989).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청년기의 결정은 남은 생애에 대한 경로(pathway) 형성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의 결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모든 선택을 연기하는 정체성의 유예를 경험하기도 한다(Marcia · Waterman · Matteson · Archer · Orlofsky, 1993). 자아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갈등, 그리고 부족한 개인 및 사회자원 속에서 청년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그 수단 중 하나로 노동은 경제적 자원의 확보와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해 나가는 의미에서 청년기의 과업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시도이다. 노동은 경제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직업을 결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돌아보고, 생산을 통한 성취감을 갖는 등 청년들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게 하

며(Arnett et al., 2006), 사회 속에서 직업이 갖는 의미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탐색의 과정을 갖는다(Berger · McBreen · Rifkin, 1996).

이러한 생애 발달 관점에서 청년기의 노동은 성인기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Turning Point)으로 볼 수 있으며, 발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후 삶의 자원과 경로를 형성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따라서 청년기 때 다른 나라로 간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 개인이 청년기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혹은 문화적으로 더 나은 생애 자원을 획득·확장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외국에서의 취업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즉, 경제적 수입만을 위한 노동이 아닌 자신의 욕구를 규명하고, 자신이 선택한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탐색의 결과로 창출된 새로운 경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이해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발달 측면과 문화·사회적 요인을 동시에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 즉 이들을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라는 집단으로 단일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욕구와 희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적 개념의 인간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청년기에 가족과 친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가치관과 정체성 발달의 확장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동화와 수용이라는 생의 과업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생애발달 단계에 놓여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더 많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수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한 접근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으며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이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문화적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을 목적으로 청년기에 한국에 온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이 체험한 이주노동이 청년기의 전환점으로서 어떤 성격을 가지며, 생애발달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라보는 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형성한 그들의 전략을 탐색하여 낯선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함의를 살펴볼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이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20-30대에 한국에 와서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작업을 실시하였다. 슛제(Schütze)의 즉흥 이야기식 인터뷰(Stegreiferzählen Narrative Interview)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4단계를 거쳐 해석하였다. 수집된 9사례 중 연구자의 연구관심인 생애발달 측면 - 삶의 전환점으로 청년기에 이주해 온 - 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는 2개의 인터뷰를 다시 선정, 심도 있게 분석(Eckfall Analysis)¹⁾하여 청년기의 해외

이주라는 변화가 가질 수 있는 의미와 한국에서의 다문화의 의미를 재구성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한국 이주 노동과 생애사 연구의 이해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노동을 간 역사는 1902년 7000여명의 노동자가 하와이로 건너가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을 대표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다(이광규, 1994).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 만주 등지로의 강제이주와 1960년대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동으로 떠난 건설 노동자 등도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 내 이주노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80년대 후반 국내 제조업체의 인력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migrant workers)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한국, 일본 등이 아세안 지역에서의 새

은 'case'의 의미이다. 이 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자료수집으로 한 인터뷰를 일정한 방법(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는 F. Schütze의 방법)의 절차에 의해 분석한 후 연구자의 연구관심사와 맞는 핵심이 되는(1~3개정도) 인터뷰를 다시 선정하여 그의 생애사적이고 사회적인과정의 이론적 변수를 찾을 수 있도록 최소(minimum)·최대(maximum)로 근원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최대의 개념은 사회학자인 스트라우스(A. Strauss)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minimum은 각 사례들이 차이가 적고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고, maximum은 각 사례들 간에 유사성이 적으며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사례를 분석함을 의미한다.

1) Eckfall은 독일어로서 직역하면 Eck은 'corner', fall

로운 이주 노동의 시장으로 각광받게 되었다(윤인진, 2003).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의해 1992년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산업기술 연수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불법 이주 노동의 증가뿐 아니라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시각으로 차별과 인권 유린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였다(박경태, 2005; 한동우, 2002a).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2000년 연수취업제도를 실시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인권 문제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이에 다시 정부는 2004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2009)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549,282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49,647명이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전체 근로자의 90%에 달하는 인원이 단순 기능 인력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여건과 생활실태 역시 열악한 상태이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연령 중 20대와 30대가 전체 연령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기와 성인기에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8).

이주노동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이주 노동이 대거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김혜진(1992), 설동훈(1992), 최규엽(1992) 등의 연구에서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취업 실태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들이 이어지면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박석운, 1995; 함한희,

1995; 한동우, 1996). 2000년 이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르는 자녀 및 가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들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노충래와 홍진주(2006), 함한희(2006), 이동찬과 나병현(2007), 박혜준(2008) 등이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적응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 개인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인권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정진우, 2002; 한동우, 2002b), 그 외에도 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하여 특히 한국어 교육의 문제가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김영란, 2006, 2007; 곽영숙, 2008; 류영석, 2008; 조항록, 2008).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구조적, 정책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인간 발달적 측면에서 충분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접근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을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는 화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시하며 사회적 실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집중하여 현실의 주관적인 세계를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의 고유한 역사가 있기에 그 역사의 실재성을 해석

하면 인간을 이해 할 수 있다는 철학가 딜타이의 주장은 인간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에 생애사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생애사 연구로 기능했던 역사적 뿌리는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 개개인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사회학에서의 최초의 생애사 연구로는 토마스와 즈나니엑키(Thomas & Znaniecki)의 1918년 제1판에 등장한 폴란드에 거주하는 농부와 미국으로 이주한 폴란드 농부들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새로운 점은 “단순한 인간”의 생애사를 사회연구의 정보 자료로서 고품격화 시켰다는 것에 있다(Adamski, 1981). 이후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데 상호작용을 중요시 하였던 시카고학파들에 의해서 생애사 정보자료인 생애 역사에 관심을 갖는 연구 작업이 계속 발전 되었다. 이러한 ‘생애사 연구’를 이야기식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라는 조사도구를 통하여 사회과학분야에서 사례분석의 기술로 개발한 것은 독일의 언어학자 쉼제(Schütze)와 그의 제자들이다(Schütze, 1981, 1984, 1987, 1989, 1994, 1999).

개인의 생애사 속에는 오랜 경험과정을 통한 축적된 개인의 삶의 전략과 행위 선택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개인이 살아온 사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개인의 생애 이야기는 화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모습까지도 반영한다. 이로 인해 한 개인의 생애 이야기는 한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및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이해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생애사 연구는 또한 화자의 삶의 전략과 생활맥

락을 이해하게 함은 물론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또한 평가도구로서 역할을 한다(이효선, 2007a).

‘생애사 연구’는 화자의 생애를 통해 그들의 삶에 대한 관점, 가치, 태도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반복적이며 묘사적인 서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술된 생애사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한다. 즉 연구자로 하여금 단지 화자가 체험한 삶의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개인의 생애사로부터 출발된 특수성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맥락과 더불어 해석되어지며 특수와 보편을 넘나들면서 그들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계획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생애사 연구는 이들의 발달과정을 생애발달의 연속적인 측면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주하기 전과 후의 개인 뿐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세계의 특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 시각을 제공하여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 세계(Sinnwelt)를 살펴보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I. 사례연구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이해 하기위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 20-30대에 노동을

목적으로 이주하여 5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자로 한국어 구사 능력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외국인 노동자들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Y시 이주노동자쉼터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받은 최초 피면접자로부터 시작하여 눈덩이 표본 방식으로 4명, S시 이주노동자모임에서 소개받은 면접자로부터 눈덩이 표본 방식으로 5명, 총 9명에게 자신의 생애 이야기를 미리 준비 시키지 않고 즉흥적으로 직접 이야기하게 하는 슛제의 즉흥 이야기식 인터뷰(Stegreiferzählen narrative interview)²⁾를 실시하였다. 즉흥 이야기식 인터뷰는 면접 질문에 대해 사전에 준비시키지 않아 이야기의 구성이 화자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슛제가 이야기를 연구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가정은 이야기라는 것이 언제나 논리적인 이성적 체계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험과 연관된 자신의 느낌이 작용하고 과거에 대한 의미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의미 세계가 파악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야기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들에 대해 추론이 가능하며, 이것은 개인의 생애 과정 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와의 뒤얽혀 있는 구조를 밝힐 수 있기에 생애 과정의 사건들과 연결된 사회적 세계와 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즉흥 이야기식 인터뷰는 이야기를 요청하는 이야기 요구단계와 화자 스스로가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구성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중요 설명 단계, 그리고 화자의 이야기 종결 후 연구자의 내재적 외재적 질문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는 후질문 단계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에게 ‘저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저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면접자가 선택한 자유로운 형식에 따라 이야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후 질문 과정을 통해 추가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실시된 인터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9사례는 4단계에 거쳐 해석이 이루어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A	B
인적 사항	성별	여	남
	가족관계	1남 5녀	2남 1녀
	학력	고졸	대졸
이주 당시	연령	21세(2000년)	25세(2004년)
	모국	인도네시아	인도
	결혼상태	미혼	미혼
	이주형태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현재 (2009)	연령	30세	30세
	결혼상태	기혼	기혼
	거주상태	불법체류상태	한국비자취득
직업 경력	이주 전	무직	컴퓨터 판매, 보험 회사
	이주 후	중소 IT산업 관계회사 취직, 식품공장 (일용직)	가구, 사출, 택배, 중고 컴퓨터판매, 다문화 관련활동

2) 슛제의 즉흥 이야기식 인터뷰(Stegreiferzählen narrative interview)와 4단계 분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질적 연구”(이효선, 2005) 참고.

어 졌으며, 그중 연구자의 연구관심인 생애발달 측면 -삶의 전환점으로 청년기에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는 2개의 사례를 다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Eckfall Analysis)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4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진 슛제의 이야기 분석방법으로 분석되었다. 각 단계의 형식은 1단계 형식적 본문 분석단계, 2단계 구조적 기술 단계, 3단계 분석적 추론단계, 4단계 비교분석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 3단계는 사례의 구성 작업으로 연구자가 사례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며, 비교분석단계는 구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재구성 작업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구조적 기술과 분석적 추론이 함께 서술되어 화자의 관점과 더불어 연구자의 해석적 관점이 포함되었다. 사례 A, B의 인명, 지명 및 개인적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표시하였다.

3. 사례 구성(형식적 본문분석~분석적 추론)

A 사례

1단계: 형식적 본문분석

① 인터뷰 요약

A는 1980년 인도네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1남 5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쾌활한 성격으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였던 A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A의 부모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A의 대학 진

학에 적극적이지 않으셨고, 이에 A는 대학 진학 대신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생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고등학교를 졸업 한 연령에 결혼을 많이 했던 그 지역의 분위기는 A에게 결혼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A가 해외 이주를 희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해외 이주에 대한 A의 강한 의지에 A의 부모님은 여러 정보를 탐색한 후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고, A는 2000년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중소IT산업 관련 공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입국 후 3년 후에는 비자만기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했으나 현재까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F지역의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처음 한국 생활은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 언어의 어려움 등으로 힘들었으나 차츰 적응해 가며 익숙해지게 되었다. 현재까지 살고 있는 F지역은 입국 당시 관계당국에서 지정하여 준 지역이었으며, 처음 일을 시작한 회사에서 작년(2008년)까지 꾸준히 일을 하였다. 성실한 직장생활로 인정을 받게 된 A는 급여도 높고 다른 직원들의 교육도 담당 하였으나, 새로 들어온 해외 산업연수생들이 자신들보다 높은 임금과 A의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문제 삼아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잠시 직장생활의 공백기를 거쳐 현재는 새로운 공장에서 단순작업(대파 까는 일)을 하고 있다. A는 2005년의 맹장수술과 2006년의 교통사고 등 한국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본국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쉼터에 오게 되었다. 쉼터에 오게 되면서 여러 관계망을 형

성하게 되었고 새로운 일과도 생기게 되어 컴퓨터에서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2001년 A를 따라 한국에 입국한 남자친구와는 올해 초 결혼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단속에 동시에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자녀 출산 이후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2-3단계: 구조적 기술 및 분석적 추론

① 어린 시절 및 학창시절 (인도네시아)

A는 1980년 인도네시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1남 5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란 A는 활발한 성격의 아이였으며, 교우관계도 원만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즐거웠던 생활로 기억하고 있는 A는 학창시절의 특별한 기억으로 초등학교 시절 친구 어머니의 재혼에 대하여 상대 배우자의 재력을 보고 한 것이라는 말로 친구에게 상처를 줬던 일을 아직까지 미안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돈 많은 총각한테 결혼했으니까 저는 그 친구한테 이런 말 했어요 ‘야~ 니 엄마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 돈 때문이지?’ (97-98)

우수한 학업 성적은 아니었지만 즐겁게 학교생활을 했던 A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였다. A의 부모님은 평소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지 않으셨지만 A의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적극

적이지 않으셨고, 결국 A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A에게 있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A는 대학 진학 대신 해외 이주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정에는 당시 그 지역의 결혼 풍습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연령에 결혼을 많이 했던 그 지역의 분위기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던 A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A는 자신의 언니들을 비롯하여 일찍 결혼한 주변 여성들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변화로 여기지 않았다. 따라서 주변의 기대는 좌절된 대학 진학이 결혼으로 대체되는 것이었지만, A는 ‘해외이주’라는 새로운 대안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A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결혼에 대한 상(image)이 부정적인 관점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결혼은 청년기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A는 이러한 결혼에 대하여 성 역할 중심의 인습적인 삶의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한 성역할 인식이 진로와 관련된 연구들(Orcutt · Waksh, 1979; Jenkins, 1989)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어 온 맥락에서 볼 때, A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 여성이라는 성 정체감은 적어도 자신이 지금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결혼)을 분명히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장상희 · 양미연 1999; 민세진 · 허인, 2007) 청년기 여성의 역할갈등으로 성 역할과 사회활동으로 상

정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A의 경우 갈등의 여지도 없이 결혼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삶보다는 자기 개인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학교 가고 싶어 안 되니까 그럼 나 무조건 다른 나라 보내주세요 나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나 안돼~ 나 시집가는 거는 자신 없고 엄마 아빠는 시집 안 보내니까 걱정마라~ 근데 그게 제 생각에도 그거 한 달 두 달 만이지. 쯔 일 년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요?(웃음) 그래서 자꾸 다른 나라 보내주세요(56-61)

강력히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딸의 생각에 A의 부모는 마음을 돌이켜 다시 대학진학을 권하였지만, A는 해외 이주로 마음을 강하게 굳혔다.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과는 달리 부모님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A였던 터라 A의 부모는 딸을 위하여 해외 이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였다. 물망에 올랐던 여러 나라 중 A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었던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부모님이 내렸고, A는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2000년 한국에 오게 되었다.

A의 해외 이주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대학 진학 좌절과 결혼 후 여성들의 인습적인 삶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어 새로운 돌파구로써 선택 되어진 획기적인 생애 사건이

다. 그러나 해외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 지는 A의 모습은 다소 수동적이며 맹목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 이주 할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수집도 부모님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졌으며, 해외이주의 목적과 계획도 명확하지 않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만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즉 자신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고 싶은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타국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떤 삶을 펼쳐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은 보여 지지 않고 있다. 이는 A가 해외이주 노동자로서 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해외이주’라는 환경의 변화와 ‘노동자’라는 신분의 변화 중 전자에 더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이주에 대한 맹목적인 성향 뒤에는 개인의 자원 개발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주변 환경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변화를 기대하는 의존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으며, 현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경험하게 될 정서의 강도나 크기를 예측할 때 범할 수 있는 초점주의(focalism)³⁾적 오류로써 설명될 수 있는데 A 또한 부분적으로 이러한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위의 과정에서 보여 지고 있는 A의 해외이주는 표면적으로는 적극성과 주체성, 도전정신이 강한 생애사건으로 보여질 수

3) 초점주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미래사건 중 자신이 주목하고 있는 특정 요인에만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이 요인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Schkade · Kahneman, 1998).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에 의존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진 생애사건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사람들은 돈 벌기 때문에 오는데 근데 저는 대학교 안 보내기 때문에 한국에 오거든요. (44-45)

② 직장생활 (한국)

2000년, 21살의 나이로 산업 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된 A는 처음 지정받아 오게 된 F지역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F지역 이외의 다른 도시는 아직도 낯설어 하여 다른 지역에 갈 때는 늘 다른 사람과 동행하여 다녔다. 사실 A는 입국 후 3년 뒤 비자 만기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야 했지만, 현재까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A는 처음 일을 시작한 F지역의 중소IT산업 관련 공장에서 작년까지 꾸준히 일을 하였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러하듯 A 또한 직장생활 초기에는 낯선 한국 문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특히 회사 직원들의 폭언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한국 사람들의 급한 성격에 적응하는 것은 한국 생활의 힘들었던 기억으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차츰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서 적응하게 되면서 이제는 A 자신도 다른 직원들의 느린 행동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에 처음에 올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 (중

략... 한국 사람들 진짜 무조건 빨리 빨리 하는데 소리 지르고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마음이 속상하고 (4-8)

또한 A는 직장생활 초기에 함께 야간근무를 하던 남성 근로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일을 사무실에 알림으로써 대처하기도 하였다. 특별히 A와 같이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부족한 사회 관계망, 신분의 불확실성 속에서 여성이라는 약자의 위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위험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이수상 등, 2008; 김영주, 2009).

근데 저한테는 같이 일하면서 막 이거 성폭행인가? 가슴을 만졌어요...(중략) ...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섭잖아요 여자니까...(중략)...그래서 그냥 내일 아침에 사무실가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 바로 보냈어요 (26-31)

이후 A는 직장생활에 차츰 적응해가며 인정받기 시작하여,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교육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급여도 차등적으로 지급받아 한국 직원들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들어온 해외 산업 연수생들이 A의 불법 체류자 신분과 차등적인 급여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국 후 9년 동안 꾸준히 일해 왔던 직장에서 지난 해 (2008년) 나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A는 잠시 직장 생활의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A가 컴퓨터에 나오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현재는 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단순작업(대과 까는 일) 근무를 하고 있다. 현

재의 직장에서도 A의 불법체류자 신분에 대하여 문제를 삼았지만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인데다가 한국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직장에서도 A의 노동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3D산업의 노동구조를 직접 경험하였던 A는 한국 사람들이 갖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에 대하여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3D직종의 인력부족 현상은 일하기 힘든 직종을 기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불신과 불공정한 임금체결 관계에서 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사실상 A의 이러한 견해는 한국 생산직 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인들은 대량 실업의 사태 속에서도 중소기업 생산직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그리고 낮은 직업 위신 등으로 기피하였고, 이에 경영주들은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인력을 외국인 노동자에서 찾게 되었다(설동훈, 2001).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일자리 빼갔어. 그런 소리는 난 이해가 안 돼.(240-241)

이렇듯 A의 직장생활은 입국 후 지금까지 잠시의 공백기(타의적인 퇴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A가 노동자로서의 삶에 잘 적응해 온 일면으로도 볼 수 있

다. A의 생애사 속에는 해외이주 후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토로하였지만, ‘일’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치적 갈등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애초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되는 진로 선택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학업의 연장에 대한 욕구나 새로운 형태의 직업에 대한 욕구는 A의 생애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제한적이며 대부분 단순 노동직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수용도 있지만, A 스스로도 자신의 직업에 있어 생계 수단의 의미에 더 비중을 두고 현재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아~ 대과. 파 까는데. 거기 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이 안 바쁘니까 자꾸 쉬어 이게. 좋아.(233-234)

외국인은 힘들어도 참을 수 있잖아요. 월급만 잘 나오면 되는 거 같던데.(243-244)

③ 한국에서 고국 사람들과의 생활

A는 한국에서 살면서 2005년과 2006년 연이어 맹장수술과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별히 병원에 있을 때 병문안을 오는 고국 사람이 없었던 일로 A는 고국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고국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쉽터로 오게 되었다. 처음 쉽터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주말 여가시간의 활용과 더불어 금전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점 등 컴퓨터를 통해 생겨난 새로운 일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A는 한국에서 고국사람들과 교체하는 것을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신분 탓에 서로의 왕래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여 이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사실 A자신은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없는 편이나 다른 친구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데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냥 일요일에 일어나서 할 일 없으. 집에서 할 일 없으면 가끔 상담하려는 사람 도와주고 돈은 많이 안 써요 ... (중략) ... 컴퓨터 있으니까 참 좋더라. (188-192)

A는 고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간혹 잊고 있던 고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시나브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새롭게 자각하게 되었다. 한국의 식습관 문화에 익숙해진 A는, 어느 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고 A의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A를 이상하게 여겼다. A의 이러한 모습은 고국에서 셋째 언니가 방문 하였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에 살면서 급한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진 A는 언니의 느린 걸음과 행동에 답답함을 느꼈고, 그런 언니의 모습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해가며 배려해야 했던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듯 A는 10여년의 시간동안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며,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갔을 때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려 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쪽 문화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개인이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을 조율해야 하는 갈등이 내포되어 있는 우려이기도 하였다. 특별히 A의 이러한 갈등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집단문화를 표현하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아이고 나 인도네시아 돌아가면 어떻게 살어~ 그쵸?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시골에는 진짜 그냥 아~ 남이사 이렇게 안되요 이게. ... (중략) ... 한국에는 이런 저런 상관 없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거 아니예요 (174-178)

A의 말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문화는 가족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중요시 되는 문화로 설명되고 있으며, 한국은 단출한 범위 내의 가족과 개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편리한 문화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의 모습을 단순히 양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A가 한국에서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가치와 문화의 단편들은 결국 A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되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A가 본국을 떠나 해외이주를 선택한 점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A가 한국의 문화에서 편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집단보다 한 개

인의 삶을 우선시하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맥락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삶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A의 생애사에서는 여성의 돌봄의 목소리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A에게 있어서 귀국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국 문화와의 조율은 과제로 남아 있는 문제이다.

④ 현재

A는 2001년 자신을 따라 한국에 온 남자친구와는 올 해 초(2009년) 결혼을 하였다. A의 배우자는 A의 고향 사람으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현재 이들은 직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이유도 있지만, 불법 단속에 동시에 적발되는 것을 우려하여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특별히 A는 자신의 생애사 속에서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언급이 적어 A 부부의 다양한 역동성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A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한국을 떠나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것과 한국에서 사는 것, 양자 모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 출산 이후 자녀들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이 컸다. 때문에 잠정적

으로는 자녀 출산 이후에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한국 땅 떠나는 거는. (W: 한국을 떠나는데요?) 응응 그건 너무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진짜 못 할 거 같애 근데 한국에 살으면 저도 자신 없어요...(중략)... 만약에 나하고 남편하고는 상관없는데 애들도 키워야 되잖아요...(중략)... 그거 생각하면 진짜 자신이 없어요.(163-168)

A 사례 재구성

“나 무조건 다른 나라 보내 주세요” (57)

A의 생애사에서 나타나는 학창시절의 모습을 보면 A는 자신의 자원을 스스로 개발하기 보다는 부모님에게 의존적인 경향이 많았는데, 이는 부모님의 양육방식의 영향이 컸다. A의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개발, 개척 해 나가는 기회나 동기가 낮을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별히 이러한 점은 A의 생애사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있을 때는 별로 힘든 일 없었어요 진짜로 엄마가 다 해줬으니깐 뭐 다른 일도 안 해 봤어요 만약에 일 하고 싶으면 엄마가 아빠가 하지 말래 뭐 갖고 싶으냐 뭐 그런 거 있어요 (54-56)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 온 A는 인도네시아에서 다른 직업의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성장 과정 속에서

4) 길리건은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t Voice)”와 “도덕 영역의 재구성(Mapping the Moral Domain)”이란 자신의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도덕을 규칙과 권리를 강조하는 정의의 도덕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두드러지는 반면 여성은 관계와 책임을 강조하는 돌봄의 도덕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하였다(이효선 · Garz, 2006).

도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였다. 이런 A에게 낯선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이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해외이주를 결정하게 된 두 가지 계기에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A가 해외이주를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는 좌절된 대학 진학과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에서였다. 제도권 교육을 마친 후 결혼을 비롯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청년기의 대표적인 인생과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의 경우 이러한 두 가지 인생 과업에 있어서 대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좌절되었으며, 결혼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인습적인 삶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으로 미루게 되었다. 결국 A는 청년기 자신의 중요한 과업들에 있어서 좌절되거나 보류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는 해외이주라는 전혀 새로운 대안으로 전환점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대학, 결혼과 해외 이주노동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사례의 재구성은 단순히 보여 지는 현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 추측 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숨겨진 의미구조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며, 이는 현상적으로 보기에 모순적인 모습에서 그 시발점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 대학, 노동자의 의미가 갖는 차이점들은 A의 삶 속에 숨겨진 의미 구조를 살펴나가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목적 하에 동일한 선상에서 살펴본다면, 대학은 학업의 연장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더 좋은 직업과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개인적 자원이 될 수 있다(Jacobs, 1996). 또한 학생이란 신분이 주는 특수성은 현실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예를 들어 경제적 혹은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해외 이주노동자는 일차적으로 낯선 문화와 작업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해결이 우선시 되는 직업이며, 육체노동이 주요 수단이 되는 직업이다. 그리고 두 가지 직업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서도 서로 다른 직업군으로 분류될 만큼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한 목적 때문에 노동자라는 직업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만, A의 경우는 경제적인 목표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으며, 그러한 과정이 분명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생애사 속에서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나 후회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위한 탐색도 없었으며 최근 이직하기 전까지 한 직장에서만 꾸준히 일해 왔다. 또한 A의 삶에서 보여 지는 결혼의 보류는 인습적인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었다. 페미니즘에서 가사노동에 종사해 온 여성들은 생산 활동에 참가하는 남성들에게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고된다(Benston, 1973; Mitchell, 1970). 그래서 여성들이 자신을 해방하는 방법으로 남성과 마찬가지로 가사에서 벗어나 사회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정태연, 2006).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A 또한 여성의 인습적인 삶에서 해방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 이주를 선택함

으로써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주 이후의 A의 모습은 타국의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삶에 적응하고 있으며, 당초 본인이 지양했던 인습적인 삶과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A의 삶 속에서 대학과 결혼은 해외 이주를 생각하게 되는 촉발제는 되었지만, 이것이 해외 이주노동자라는 직업과 명쾌하게 연결될 수 있는 논리적인 고리가 미약함을 볼 수 있다. 이렇듯 A의 삶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새로운 시도(해외이주: 환경적 변화)와 적응이라는 테마이며, 이것이 곧 A의 삶을 대표하는 구조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A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주’라는 환경의 적극적 변화를 선택하는 모습과 이주 이후에 한 지역에만 머물며 ‘노동자’라는 직업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다. 새로운 나라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것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이지만 A의 삶을 구조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A가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로 창출(path creation)은 경로의존(path dependence)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경로의존은 인간의 행위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한 최초의 결정은 매우 개방적 관점에서 개정이 가능하게 선택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정들은 현재와 미래의 선택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Sydow · Schreyögg · Koch, 2005;

Garz, 2008; 이효선, 2009). 처음에는 고정된 일반적 기준이나 방식이 없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결정들은 점점 특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며 점점 바꾸기 어렵고 고착된 경로(path)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경로는 집합과 체계 속에서 잠기게 되며 다음 세대들의 결정은 결국 전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경로에 의존해서 같은 패턴으로 선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A가 살았던 지역에서 대학이 결혼으로 대체되는 것이 경로 의존의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여 이러한 경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던 A의 모습은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내포하고 있는 사회인지적 과정(Weick, 1979; Garud · Rappa, 1994; Garud · Karnøe, 2001)으로서의 경로창출의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의 모습이 보다 확실한 경로창출로 이어 질 수 없었던 것은 A가 해외이주라는 사건을 통해 전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긴 하였지만, 이를 다시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보다는 기존의 이주노동자들이 형성해 놓은 삶의 양식(경로)과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A는 노동자의 직업과 한국 사회에 동화적 적응을 하여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B 사례

1단계: 형식적 본문분석

① 인터뷰 요약

B는 1980년 인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3남매(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학업 성적이 우수

했던 B는 활발한 성격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취미로 춤을 추는 것을 즐겨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아버지는 B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반대하였지만, B는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여 대학에 진학하였다. B는 학비마련을 위해 컴퓨터를 가르치며 중고컴퓨터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졸업 후에는 보험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기도 하였다.

경제적 풍요를 가족의 행복이라 생각한 B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를 희망하였다. 이러던 중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작은 아버지의 권유로 브로커를 통해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2004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돈을 벌고자 희망하여 한국으로 왔지만 한국에 대한 정보 및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자리 및 모든 생활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던 B는 특별히 음식과 언어로 인해 2~3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B는 염색, 가구 회사, 택배, 사출 관련 일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되었으며, 어떤 직장이든 일을 열심히 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일을 하지만 자신이 외국 사람이란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도 하였다. 고기를 먹지 않던 힌두교 문화와 남자는 요리를 하지 않는 인도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B는 차츰 고기를 먹으며 직접 요리를 하기도 하며 한국 생활을 해나갔다. 또한 B는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N교회에서 인도의 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2006년 무렵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한국 생활 4년이 지난 뒤 2007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한국 국적을 소지한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B는 한국 비자를 받게 되었다. 비자를 받은 후 보다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 일로써 유치원을 찾아다니며 인도의 문화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어를 가르쳐 주고 컴퓨터 판매, 옷 판매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2-3단계: 구조적 기술 및 분석적 추론

①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 (인도)

B는 1980년 인도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B의 가정은 많은 수입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경제활동으로 가족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었다. 활발한 성격에 학업 성적도 좋았던 B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으며,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은 잘 하는 학생으로 전반적으로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B는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춤도 잘 추었기 때문에 또래 사이에서 인기 있는 학생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B의 행동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쉽게 용인되곤 하였다. 즉 B는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차적인 사회의 장(field)인 학교에서 타인들로부터의 인정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이후의 생애사 속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었다. 학창시절의 특별한 사건으로 곁으로는 자신을 좋아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싫어했던 선생님에게 짓궂은 장난을 한 것을 재미있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즉 타인을 놀렸던 행위가 학창 시절의 재미있

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나 좋아서 애네들 나 좋아서. 왜냐면 나는 공부도 잘 하고~ 뭐 아무거나 하면 다 잘해.(25-27)

그 다음에 만약에 나쁜 거 있어도 그거 재밌게 해. 우리 하나 선생님 있었어 영어 가르쳐주는. 저 선생님 그냥 말로만 나 좋아~ 마음에서 나 싫어. 그거 내가 알고 있었어...(중략)...뽀 뭐야 이렇게. 그거는 수업시간에 책상 안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왔어. 그 다음에 우리 생각안 하고 있어 밑에 손 들어가.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손. 그 다음에 저 선생님 너무 귀여운 소리로 '오우~' 그 다음에 도망갔어.(30-37)

고등학교 졸업 후 B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B의 아버지는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만류하셨다. 하지만 스스로 학비를 마련한 B는 대학에 진학하여 웹 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대학 재학 중 학비 및 가족의 생활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르치고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또한 대학 졸업 후에는 보험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기도 하였다. 학비 마련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 가는 B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직업과 직결될 수 있고 발

전가능성이 유망한 컴퓨터 관련 분야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의 행위 선택에 있어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돈을 벌면 자기를 위해 쓰는 남동생과 달리 B는 자신의 월급을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렇듯 B에게 있어서 가족은 자신보다 먼저였다. 타국에서 돈을 벌게 되면 보다 저축이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에 B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기를 희망하였으며, 특별히 영국에 가기를 원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구체적인 나라를 결정하지 못하고 단지 타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중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작은 아버지의 권유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된다.

왜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거 때문에 여기 왔어. 가족 끼리 때문에 여기 있어요.(183-184)

한 명 사람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4명사람 행복하게 살아. 뭐 나 때문에 지금 다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나만 힘들어도(408-409)

B는 가족들이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타국에서 노동이라는 행위를 선택하고 있다. 즉 타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던 B의 결정 이면에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B가 자신의 행복을 '가족'이라는 집합에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B의 사

고는 개인적 목표보다는 집합체의 목표에 우선권을 두려는 집합주의적 사고(Triandis, 1995)로써 볼 수 있다.

② 직장 생활 (한국)

작은 아버지의 권유로 한국으로 오기를 결심한 B는 1,000만원을 들여 브로커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2004년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었지만, B는 자신이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감행한 것이다. 이러한 B의 행동은 두 가지 측면을 보게 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한 적극성이며, 다른 측면은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신의 수단에 대하여 무분별한 수용과 합리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입국에서부터 불법으로 들어오게 된 B는 이후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들이 불가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B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B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다.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한국에서 기반을 잡는 여타의 다른 도움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생활 초기 부족한 정보력과 언어의 어려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상황은 B에게 힘든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하지만 B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았는데, 이를 통해서도 B의 적극적인 에너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3D업종에 종사하듯 B의 경우도 3D

업종의 일들을 비롯해 가구 회사, 택배, 사출 관련 일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되었다. 인도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학력과 직업력에 비교해볼 때 한국에서의 일은 B에게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 온 이상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스스로 체념하게 된다. 특별히 B는 언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B는 자신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업능력을 최대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해야지 다른 나라 왔으니까. 자기 나라에서 내가 그런 거 일 안 해.(133-134)

나 말 못해도 일만 잘해서 괜찮았어요 (307)

어떤 직장이든 일을 열심히 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게 된 B는 공장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월급 지불 시기가 늦어지거나 자신에게 욕을 할 경우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차별적인 임금에 대한 불만과 한국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들과 싸웠던 기억, 사업장이 갑작스레 공장 문을 닫게 되며 임금을 받지 못한 기억, 한국 사람들은 쉬면서 자신에게 일을 시켰던 일 등은 B의 생애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위에서 보여 지듯 B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도 보인다.

나 거의 1년 했어. 저 사람 아직 지금 왔어 일 못해. 그 다음에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에 저 사람 기분 나빠 외국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 그거 때문에 나랑 싸웠어. ... (중략) ... 내가 말했어 사장님한테 내가 그만 뒤. 그 다음에 사장님 저 사람 찼잖아 왜냐면 내가 다 일하고 있으니까 거의 공장장 거의. (115-122)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권리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B의 모습은 인도에 있는 원가족을 향하여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즉 B는 가족을 위한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불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며, 이러한 B의 모습은 결국 그가 자신의 가족을 위한 의무와 역할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기를 먹지 않던 힌두교 문화와 남자는 요리를 하지 않는 인도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B는 한국 이주 초기에 한국의 문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2~3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대부분 고기가 들어가는 한국 음식의 특성과 고된 일을 하기에 체력적으로 힘든 이유 등으로 차츰 고기를 먹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직접 요리를 하기도 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 또한 무엇이든 금방 배우는 B는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글을 쓰지는 못해도 읽을 수 있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취미로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B는 N 교회에서 인도 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어 이를 계기로 2006년 무렵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처음엔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것 같았지만 신은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덜었다. 그리고 B에게 있어서 교회는 타국의 친구들을 사귄다 수 있고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B의 적응 과정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실용성을 기반으로 한 동화적 적응이라는 점이다. 육식에 대한 금기가 엄격한 힌두교 문화 속에서 자란 B가 고기음식을 먹는다는 것과 신앙의 형태를 바꾸는 것 등은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B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인도의 전통적인 문화이며, 그 속에는 그들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적응과 사회적 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타협해 가는 B의 전략은 실용성과 수단성이 강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③ 결혼 생활

2007년 한국 생활이 4년여 지난 뒤 B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B의 아내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10살 연상의 필리핀 여성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전 남편의 폭행으로 갈 곳이 없을 때 B의 집에서 며칠 머물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몇 번 반복된 뒤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혼 후 거처가 없어 B의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과 결혼을 하면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B는 고민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인도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단지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한 결혼으로 전하였다.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왔던 B는 4년여 기간 동안 불법체류로 한국에 머물러 있었던 벌금을 내고 한국 비자를 얻게 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제도권 속에 속하게 되었다. 과거 한국 사람들이 기피했던 분야의 일을 해야만 했던 B는 한국 비자를 얻게 되면서 보다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다.

비자 문제니까 비자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나보다 나이 많아요 10살? 할 수 있어? 비자 받아야지.(240-241)

B에게 있어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기보다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합법적인 형태를 만들어주는 가장 큰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원가족의 행복은 중시하면서 정작 자신이 형성한 가족에 대해서는 수단으로 서밖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결혼마저도 수단으로 선택한 B의 모습에는 타인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위험성이 담겨있으며, 더불어 비자를 얻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모습에는 자신 또한 인도에 있는 가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희생의 역할에 고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④ 현재

이주 초반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차이로 힘들어했던 B는 한국 생활 5년이 지난 지금은 수월하게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을 중시하는 B는 점차 개인적

인 문화로 변하고 있는 한국보다 인도가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B는 올 해 12월 결혼하는 여동생의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월급을 인도로 송금하고 있다. 한국 비자를 얻고자 결혼했던 부인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 해 인도에서 있을 여동생의 결혼식에 동반할지 그리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현재 B는 지인의 소개로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 일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모국인 인도의 문화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6주간 이루어지는 다문화 프로그램은 인도의 인사말, 노래, 숫자, 의상, 음식, 춤 등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일이며, 이 일은 B의 삶에 만족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B는 이 뿐만 아니라 영어를 가르쳐 주고 컴퓨터 판매, 옷 판매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해야지~ 잘 살아야 돼.(99)

B 사례 재구성

“비자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240)

어린 시절 및 학창시절 등 전반적인 생애사를 통해 B의 모습을 보면 사회적 자원의 부재가 더욱 자신의 개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목표 지향적이며 전략적인 자원 활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으로의 이주 초기 B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힘들어 하였으나, 이후 종교·언어·음식 등 자신의 삶의 목적과 부합되는 측면에서 생존과 생계를 위해 선택된 것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전략적이며 실용

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이라는 측면 이면에 자기중심적이며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하는 하는 B의 패턴을 볼 수 있다. 즉, 도구였던 이성이 목적으로, 목적이었던 인간이 수단으로 전치되는 (Horkheimer, 1972) 모습이 나타난다. B는 한국 생활이 4년여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소지한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함으로 한국 비자를 얻게 되었으며, 처음 한국에 올 당시는 불법체류의 상태였지만 현재는 합법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위와 같은 결정은 앞서 ‘가족’을 중시하는 B의 모습과는 모순되는 행위로, 정작 자신의 가족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비도덕적인 행위이지만 필요에 의해 결혼을 선택한다. 도덕적 행위는 도덕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고, 사회적 권위를 동반하고 있는 사회적 기대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해진 행위 또는 그러한 사회적 기대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위할 것이라 기대되는 행위의 총체이다(김기상, 1997). 그렇지만 자신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 최종 결정을 내릴 때의 (노상우 등, 2001) B의 모습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에게 도덕적이면 그것이 곧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⁵⁾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B의 이러한 행위는 ‘한국사람’이 아닌 경우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원인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기도 하다.

B는 결혼을 정당한 행위로 여기고 있지만 반면 자신의 배우자 및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B의 삶에서 위와 같은 행위의 배경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Gilligan(1982)은 돌봄의 도덕은 결합된 상호관계 즉 친밀성과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자아가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다른 사람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살핌의 의무를 중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에서 도덕성의 근거를 찾으려 하는 ‘배려의 도덕성(the morality of caring)’으로 집합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이들은 주로 이러한 집합체가 부과하는 의무와 규범에 따라 동기화되고, 자신의 개인적 목표보다는 집합체의 목표에 우선권을 두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집합체의 성원들과 갖는 연계성을 강조한다(Triandis, 1995).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를 ‘가족’에 동일시하고 있는 B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 하에 ‘가족의 일부인 나’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외이주를 결심한다. 고봉주(2000)에 따르면 한 개인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자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B는 스스로 가족의 경제적 풍요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의무와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의 개념에 비추어 B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고는 또 다시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콜버그는 정의(justice)의 원리를 도덕이라 규정하며, 정의의 도덕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을 통해 자아가 발달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불평등의 문제, 권리 등에 초

5) 도덕적 상대주의란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할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도덕률의 존재를 부정하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관점에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도덕적 사고의 특징을 의미한다(송명자, 2000).

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며, 무엇이 옳고, 사람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것(Langdale · Lyons, 1985; Garz · 이효선 역, 1999)이라 하였다. 또한 정의는 어떤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과정을 확보함으로써 올바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인간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권리나 평등 · 공정성 · 의무 등을 강조한다(이미식, 2000). B의 경우 자신이 타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은 용납을 하면서도,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거나 침해받을 경우에는 참지 못하는 행위를 보인다. 한 예로 선생님을 놀렸던 것을 즐거웠던 사건으로 기억하는 반면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에서는 월급 지불 시기가 늦거나 자신에게 욕을 할 경우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경우 싸우기도 한다. 이를 통해 B가 자신의 권리 존중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 타인이 침해할 경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람은 항상 동등하게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Gilligan, 1982). 자신의 권리가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라면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도 존중 되어야 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B의 경우 권리에 대한 측면이 자신과 자신의 인도 가족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더불어 인도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은 희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B는 자신이 소속한 어떤 테두리 안에서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이거나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유팔무, 1996), 또한 B의 삶에서 정의와 돌봄에 대한 개념이 자신과 인도에 살고 있는 원 가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 사례 재구성: 4단계 비교분석

4단계 비교분석 단계에서는 두 사례를 최소한과 최대한의 비교점에 의해 대조하고, 이러한 비교분석 과정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제시된 사례분석을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 개인의 생애발달 과정과 특성에 관한 부분과 외국인 노동자 개인과 사회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였다.

1) 외국인 노동자 개인의 생애발달 과정과 특성

한 개인이나 집단이 기존의 문화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에 접하게 되는 사회 간 접촉(between-society contact)이 발생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정진경 · 양계민, 2004; 이효선, 2007b). 하지만 인간은 어떤 환경을 접하든 적응하며, 그 적응은 단순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고 자신이 해석한 환경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행위를 만들어 낸다(Glasersfeld, 1995).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그러하듯 A, B 또한 낯선 한국 문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2-3년 간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각자의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 때 A, B의 적응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

재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행위 선택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A의 경우 결혼과 학업의 대안으로 선택한 해외 이주였으나 이주 이후 노동자로서의 삶에 충실하며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에 안주하는 모습, 즉 인습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모국을 떠나왔지만 모국에서 고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단순노동직에 순응하며 수동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후 한국 생활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도네시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회귀하지만, 한 예로 음식점에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모습은 A가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은 채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동화(Berry, 1997)의 형태로, 본국의 문화를 거부하고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B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에서 선택한 해외 이주였으며, 이주 이후 적극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적응해간다. 적응과정에서 B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부합되는 측면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전략적이면서 실용적인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위와 같은 측면 이면에 자신의 목적과 부합한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일지라도 결론적으로 선택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 예로 한국 비자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자신의 결혼마저도 수단으로 선택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A, B 모두 한국어를 구사하고 직장생활과 기타 교회 및 컴퓨터 활동 등을 하며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각자의 생애 과정을 통해 이들의 삶을 조명해

봤을 때 A는 ‘안정을 추구하는 삶’으로, B는 ‘전략적인 삶’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동화적 적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보다는 단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환경에 자기를 맞춰가는 과정만 필요할 뿐이며, 외국인 노동자로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적응의 형태를 보이지만 정작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펴볼 때 이들의 삶에서 발달적 측면이 간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 가치관 등에 대한 고통스러운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종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이인정 · 최해경, 2007). 하지만 A, B의 경우 청년기 이전까지 살아왔던 본국의 문화와 이주로 인해 변화된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신념, 가치관 등에 의문을 제시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체감 발달과정의 면모를 살펴보게 한다.

따라서 청년기에 고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이주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삶은 그 시기의 생애 과업과 더불어 보편적인 인간발달 단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생애발달단계 중에서도 A, B가 속한 청년기는 이전 시기까지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여 정체성 확립과 미래설계, 직업선택과 유지, 결혼 및 관계형성 등의 주요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단계인 동시에 장·노년기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애 단계로

알려져 있다(Havighurst, 1972). 또한 이 시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은 이후 친밀감 형성의 기초가 된다. 에릭슨은 친밀감을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설정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Norlin · Chess, 1997). 즉, 건강한 성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을 무난히 수행해야 성인기의 새로운 도전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정옥분, 2000). 현재 A, B 모두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중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신념, 가치관 등에 대한 진정한 고려 없이 행위로만 적응하는 것은 이후 전개되는 이들의 삶에서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외국인 노동자 개인과 사회 환경

한 인간의 삶이 결코 사회와 단절되어 이루어 질 수 없기에 이들의 생애사가 보여주는 것은 비단 개인의 역사 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 환경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한다. 인간은 사회적 과정의 산물임과 동시에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발달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각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⁶⁾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갖는 이러한 신분상의 위치는 현재 한국에서 점차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담론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진다. 특별히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10년째 한국

에서 살고 있는 A와 한국국적을 가진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한국비자를 취득한 B의 모습은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A는 10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도 그러한 신분은 그녀의 약점이 되고,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B의 경우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겪는 부당함과 어려움 때문에 조건부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분명 이들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못할 때는) 불법체류자로 집단화되어 규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생되어지는 임금 체불 문제, 인권유린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분명 그들의 존재를 현상적으로 인식시켜주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법적인 근거는 그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그들의 존재는 현상으로는 인정되나 법과 제도적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제 이주의 정주화 과정이 노동이 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수용국 내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순서를 밟아가는 경향을 볼 때 (Stephen · Mark, 1996; 전형권, 2008 재인용), 한국사회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학술적 · 정책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실상 아직까지 개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이들에 대한 법적 ·

6) B의 경우 현재는 한국비자를 취득하였음.

제도적 논의에서 다인종·다민족의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지향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함하지 못하고(않는) 있는 것이 그 실례라 할 수 있으며, A와 B의 경우처럼 외국인 노동자는 그 대표적인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와 관련된 법률과 서비스는 한국 국적(비자)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그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제도적인 보호와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A와 B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과 전략들은 결국 한국 사회의 제도적인 상황과 맞물려져 있으며 그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법이 한 국가의 이념과 사상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법은 현재의 정책방향, 혹은 지금까지 논의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현재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관련한 담론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한 개인의 삶에 대하여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 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되었으나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⁷⁾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는 제도적 준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명시하고 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때 현재 우리사회가 개념화하

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하여 반성적인 성찰을 제기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는 법령 명에서 알 수 있듯 위의 법은 지원대상이 가족(혈통 중심)이라는 범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때의 다문화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⁸⁾ 이를 살펴보면 한국인과의 혼인관계나 혈연관계, 귀화 등을 통한 국적(비자) 취득 여부에 따라 이주민을 구분하고, 한국 국민이 된 사람을 중심으로 정책의 포괄범위를 조정하는 협소의 개념을 담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결혼이민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적이다.⁹⁾ 이는 한 개인의 삶보다는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정착화 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동화주의적 다문화 정책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

8) 법률이 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하고 있음.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혹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실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하여 입국한 결혼이민자 (F-2비자 소지자) 또는 입양자녀(F-1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7)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8937호, 2008. 3.21제정, 2008. 9. 22 시행

런하여 Kymlica(2006)는 다문화주의가 역사적으로 다문화주의 국민 만들기의 응답으로서의 다문화주의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고 보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상 공통의 언어 장려, 교육에서의 핵심적 커리큘럼 등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 등을 내세우며 ‘국민 만들기’의 과정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정책은 국수적 편향과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조영달 등, 2007).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B를 살펴볼 때 A, B의 삶이 스스로가 선택한 자율적인 삶일 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필연성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의 경우 한편으로 한국에 정주화 하는 것을 희망하기도 하지만 A 부부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노동자, 불법체류자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것으로 한국사회에 동화되어지는 삶을 선택하였다. B의 경우는 정주화의 의지가 크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목표를 이루기위해 보다 안정적인 신분을 얻고자 하여 적극적이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조건부 결혼)으로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방법을 선택한다. 오히려 제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즉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역 이용하여 합법적인 체류형태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B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비도덕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이 국적취득이 목적이 되어 결혼이 수단화되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필리핀 여성과 인도네시아 남성,

각각 다른 나라 출신의 남녀가 한국국적을 가진 부부가 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다문화가족의 형태를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단기순환원칙만을 고수하여 불법체류자로 일원화시켜 관리 감독하는 것은 실제 한국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다문화’의 의미에서 어떤 것이 선별기준이 되며 배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게 한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은 결혼이주민이나 한국국적을 획득한 외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범주가 ‘국적취득여부’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개념에는 차등적인 포용의 기준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곧 다문화사회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동등한 기준으로써 적용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차별적 포섭과 배제의 기제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던 원숙연(2008)은 정책적 포섭과 배제의 세 가지 요소로서 혈통에 대한 인식의 정책적 반영, 부계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인식의 정책적 발현 그리고 대상 집단이 갖는 도구적 효용성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대상 집단이 갖는 도구적 효용성은 외국인 집단이 한국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현재적 또는 잠재적 기여의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농어촌 출신 남성의 결혼과 저 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정책적 편입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이주자의 경우 체류자격에서부터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른 대우를 받으며, 체류기간도 한정적이어서 주기적으로 출국과 재입국을 반복해야 한다. 즉 동일한 개념의 다문화가족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에 따른 차별적인 법 적용은 우리 사회가 가진 차별적 정책의 모습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관련 법률¹⁰⁾에서 명시하듯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으로 근로 제공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의 법적지위는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자’로 인정받으며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 즉 이들에게는 ‘노동력’이라는 개념이 최상위범주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력만을 제공해주면 될 뿐, 문화적 주체로서의 역할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은 집단으로 여겨지며,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을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다문화 사회 개념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단기순환원칙이 고수되면서 문화를 가진 주체보다는 단순 기능인력으로 전제되고 있으며, 여전히 혈통이 중심이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UN 인종차별 차별철폐 위원회는 한국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와 단일 민족 국가의 인종적 우월성 극복 등을 권고한 바 있다.¹¹⁾ 그러나 최근 정부의 외국인 정책

속에는 여전히 혈통을 중시하는 국가적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 2008년 처음으로 확정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¹²⁾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기능인력) 필요에 맞추어 도입하되 원칙상 일정기간 이상의 정주를 지양하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정한 법의 집행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표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문화의 정책의 범주에는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중심이 되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여전히 우리사회의 다문화의 개념은 오히려 한국의 민족성과 고유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문화사회의 담론이 오히려 반대로 문화적 공동체의 정체성 부여 역할과 기능을 특정한 방법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 Nassehi (1999)의 관점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 속에 잠재되어 있던 단일민족이라는 혈통적 자부심이 다문화 사회 - 문화 간 비교 담론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 라는 담론 속에서 뚜렷이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 담론이 결코 특정 집단의 절대적인 수월성(absolute Primat des Kollektives)이라는 코르셋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것이라 말한 핀 킬크라우트(Finkelkraut, 1989, 천선영, 2004 재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장 제2조,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11) 2007년 8월 17일 UN 인종차별 철폐협약 위원회

12) 정부는 2008년 12월 17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을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음

인용)의 경고는 현재 우리사회가 만들어 가고 있는 다문화 개념에 대해 직격탄을 가한다 할 수 있다. 다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각 개별 문화들의 존재를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각 개별 문화들의 차이와 다름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다문화 담론이 그냥 다름과 다양성, 차이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수준에서 머문다면,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개념은 ‘다른 너가 있기에 더욱 분명히 구별되는 우리’라는 편협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여기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성숙한 담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그저 다양성을 지향하는 다(multi)문화개념과 달리 개인과 집단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지는 과정과 통합을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개념(Martine, 2006)이다. 이를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인 지향, 지식,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과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 등이 배양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정책은 다문화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대안의 부재 속에 피상적 모토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다문화사회 만이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수준으로, 합의된 이념과 방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김이선 등, 2006).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이 요구된다.

보다 성숙한 사회적 담론을 촉구하는 이러한 요구는 다소 추상적이며 진부한 이론적인

제언일 수 있으나, 그 진부한 진리를 실천으로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진부함에 숨겨진 진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대외적으로 이민국이 아님을 강조했던 독일정부는 현재의 한국처럼 외국인에 대하여 단기순환원칙을 강력히 견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 독일은 이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며 이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독일의 노력은 아직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국익의 도모라는 이유로 강력한 통제체제로 이주자들을 관리 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통제와 관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에, 성숙한 민주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독일 사례는 잘 말해주고 있다(이용일, 2007). 이에 독일은 성숙한 인권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소통의 통로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막스 프리쉬(Max Frisch)의 말처럼 그들은 노동력을 불렀지만, 정작 온 것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Man hat Arbeitskräfte gerufen, und es kamen Menschen).

따라서 점차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거부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사한 타이틀이 아니라 이 땅에 온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갈 때 보다 건강한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그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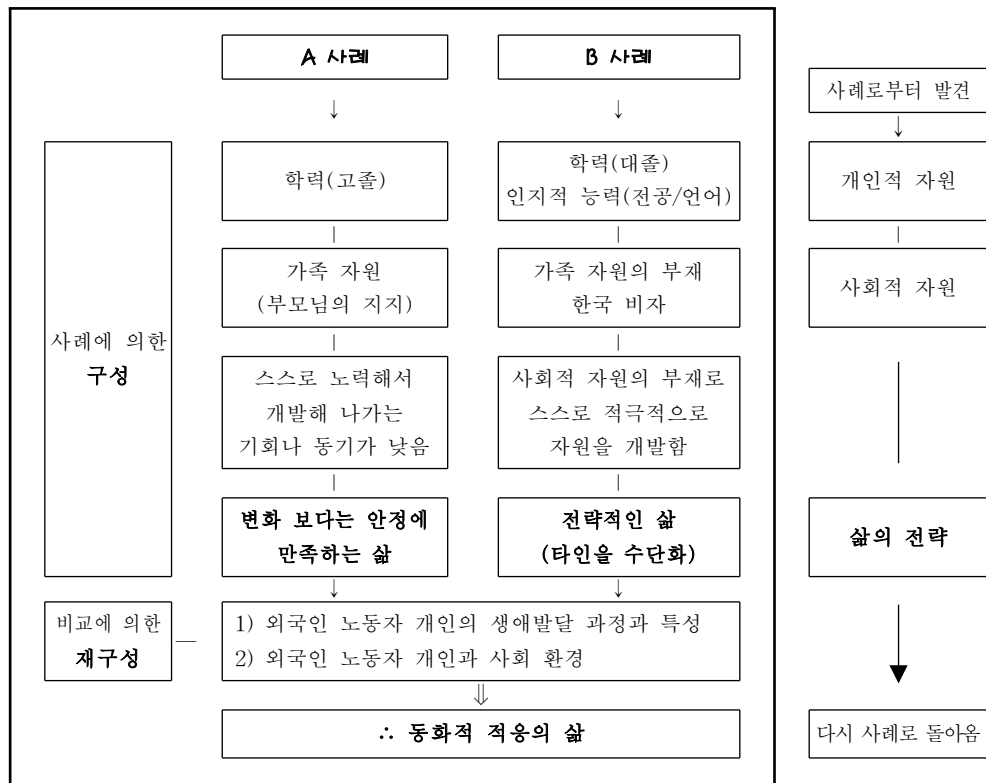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과정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각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재구성 내용과 본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기에 이주노동자라는 신분으로 5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체험한 이주노동이 청년기의 전환기로서 어떤 성격을 가지며 생애발달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형성한 그들의 전략을 탐색하여 낮은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숫제의 즉흥 이야기식 인터뷰를 조사도구로 하여 이야기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중 연구자의 연구 관심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생애발달 측면을 상대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는 두 개의 사례를 다시 선정하여 최소와 최대로(Minimum & Maximum) 비교하며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우선 각 사례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의 경우 대학 진학의 좌절과 결혼

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에서 해외이주를 결심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동기와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은 다소 모순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A의 삶에 있어서 해외이주의 의미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변화라는 측면 뿐 아니라 안정적인 삶의 추구라는 양면성을 발견케 하였다. 이는 현상적인 측면을 넘어서 A의 삶의 구조적인 맥락에서 보다 명확히 살펴 볼 수 있었는데, 해외이주의 계기가 된 동기 속에는 인습적인 삶에서 벗어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인습적인 삶에서 새로운 경로를 창출해 나가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착 이후에는 ‘노동자’라는 단순 노동직에 가치적 갈등 없이 적응하고, 또 다른 직업과 삶의 형태에 대한 욕구나 계획이 없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는 모습 등은 A가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A가 해외이주라는 사건을 통해 전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긴 하였지만, 이를 다시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의 이주노동자들이 형성해 놓은 삶의 양식(경로)과 유사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노동자의 직업과 한국 사회에 동화적 적응을 하여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B의 경우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에서 해외이주를 선택하였다. 가족 자원의 부재로 모국에서 적극적으로 자원을 개발해야 했던 B는 이주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개발하며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 살아

간다. 하지만 B의 적극성이며 실용성이라는 특성 이면에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으로 특히 타인을 도구화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때 자신의 비도덕적인 행위도 용인되어지곤 하였다. 특별히 ‘권리’라는 부분에 있어 타인의 권리는 존중하지 않은 채 자신과 인도에 있는 가족의 권리에 대해서만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과 인도에 있는 원 가족에게만 제한된 정의와 돌봄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각 사례 분석 후 비교분석 과정을 통해 재구성한 결과, A, B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적극적인 적응을 보이지만 본국과 한국의 이중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신념, 가치관 등에 대한 물음이 생략된 채 적응을 위한 행위만을 하고 있었다. 청년기에 속해 있는 A, B는 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정체성 형성을 마치고 직업과 사랑을 결정하는 생애 과업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모두 주체적인 행위로서 청년기에 이주노동을 선택했지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 보다는 자신의 모국과 거주하는 한국 사이에서(im da zwischen) 결과적으로 동화적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본 연구 대상자에 제한된 결과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표면적인 적응 이면에 간과된 개인적 발달과업의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욕구와 부족한 인력난의 해결이라는 개인과 사회의 요구 속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 같이 ‘동화적 적응’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뿐만 아

나라 우리 사회에서 단지 이들에게 노동력만을 요구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음으로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 최근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라는 이슈에 대하여 다인종·다민족의 다문화 인권국가 구현을 지향하면서 국제적인 흐름에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는 모순되게도 한국의 다문화 사회는 선별적인 기준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와 관련된 법률과 서비스는 한국 국적(비자)을 취득한 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그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는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이 제도적인 보호와 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기준 속에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혈통중심의 인식과 단일민족의 우월성 등이 내포되어 있어 우리사회의 다문화의 개념은 오히려 한국의 민족성과 고유성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문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각 개별 문화들의 존재를 전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각 개별 문화들의 차이와 다름에 대하여 끊임없이 인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의 다문화 담론이 단지 다양성과 차이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그저 다양성을 지향하는 다(multi)문화개념과 달리 개인과 집단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지는 과정과 통합을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개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이

론적인 제언을 넘어서 상호 문화주의적 관점이 관철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 반영과 다문화 사회의 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토론과 논쟁의 과정 속에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봉주 (2000). 교육장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곽영숙 (2008). 이주 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2), 293-342.
- 김기상 (1997). 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6, 6-45.
- 김영란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 여성연구, 45(1), 143-189.
-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문제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46(1), 43-95.
- 김영주 (2009). 충남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 및 지원 정책 방안 -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 민족연구, 37, 178-192.
- 김이선 등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혜진 (1992).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현황과 올바른 대응방향. 정세연구(민족민주운동연구소), 113-126.
- 노상우, 신미경 (2001). 여성성과 타자성의 도

- 덕교육적 함의 - 길리건과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21, 45-63.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류영석 (2008).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입국 예정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학습을 위해서-. *언어와 문화*, 4(3), 77-102.
- 민세진, 허인 (200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요인의 세대 간 분석. *여성과 경제연구*, 4(1), 39-60.
- 박경태 (2005).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경제와 사회*, 67, 88-112.
- 박석운 (1995).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법과 사회*, 11(1), 273-299.
- 박혜준 (2008). 가족의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 *가족과 문화(가족학논집)*, 20(1), 99-129.
- 설동훈 (1992).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 사회*, 15, 113-144.
- 설동훈 (200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인권과 평화*, 2(1), 53-87.
- 송명자 (2000).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유팔무 (1996). 대학생의 의식구조와 대학생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83, 18-25.
- 윤인진 (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 -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4), 101-142.
- 이광규 (1994). *재중한인 - 인류학적 접근*. 일조각.
- 이동찬, 나병현 (2007).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초등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탐색.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대회*, 2007(1), 1-18.
- 이미식 (2000). 정의와 배려의 윤리적 논쟁과 덕교육에 대한 함의.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상, 장임숙 (2008).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243-268.
- 이용일 (2007). 독일의 이주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한민족유럽연대 공동주최,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 심포지움 발표자료.
- 이인정, 최해경 (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경기 파주: 나남출판.
- 이효선 (2005).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질적 연구-이론과 실제*. 경기 파주: 학현사.
- 이효선 (2007a). 중도장애인의 사고 이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4), 217-244.
- 이효선 (2007b). 파독 간호사의 생애발달에 관한 질적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3, 153-180.
- 이효선 (2009). 한국 여성들의 삶의 이해를 위한 가족 패러다임 재구성 - 여성세대 생애사를 중심으로 -. *여성학논집*, 26(1), 135-181.
- 이효선, Garz, D. (2006).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해: 인간발달과*

- 사회구조. 경기 고양: 공동체.
- 장상희, 양미연 (1999). 사회 사이버스페이스에 나타난 성역할 이데올로기.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9(1), 55-78.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259-284.
- 정옥분 (2000).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진우 (2002). 특집 자치단체의 외국인 행정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51(581), 34-41.
- 정태연 (2006). 사회적 독립가능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143-162.
- 조영달 등 (2007). 다문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항록 (2008). 이주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과제 -한국어 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사회언어학, 16(1), 299-316.
- 천선영 (2004). 다문화사회 담론의 한계와 역설. 한독사회과학논총, 14(2), 363-380.
- 최규엽 (1992).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대응. 정세연구(민족민주운동연구소), 100-112.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자격별외국인근로자현황. 법무부.
- 통계청 (2008). 2008 국제인구통계연보. 법무부.
- 한동우 (1996). 국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연세 사회복지 연구, 3, 459-488.
- 한동우 (2002a). 국내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사회적 대응방안. 상황과 복지, 12, 13-42.
- 한동우 (2002b).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복지, 7, 111-134.
-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1), 199-221.
- 함인희 (2006). 이주노동자 가족정책-정책의 사각지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2-27.
- Adamski, W. W. (1980). *Die autobiographisch orientierte Soziologie: Zwischen intuitiver und quantitativer Ausrichtung*, in: J. Matthes, A. Pfeifenberger, M. Stosberg, Hrsg., *Biographie in handlung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Nürnberg: Berlag der Nürnberger forschungsvereinigung, 31-54.
- Armon, C. (1989). Individuality and autonomy in adult ethical reasoning. In M. L. Commons, F. A. Richards & C. Armon (Eds), *Adult development: Vol. 1. Comparisons and applications of developmental models*. 179-196. New York: Praeger.
- Amett, Jeffrey J., & Jennifer L. Tanner., (2006).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 Benston, M. (1973). The political economy of women's liberation. *Monthly Review*, 21, 13-27.

- Berger, R., McBreen, J., & Rifkin, M. (1996). *Human behavior*. Longman: USA.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Frinkelkraut, Alain. (1989). *Die Niederlage des Denkens*. Hamburg: Reinbek.
- Garud, R. & Karnøe, P. (2001). Path Creation as a Process of Mindful Deviation. In: Garud, R. & Kamee, P. (eds.): *Path Dependence and Creation*. Mahwah, N. J., 1-38.
- Garud, R. & Rappa, M. (1994). A socio-cognitive model of technology evolution. *Organization Science*, 5(3), 344-362.
- Garz, D. (2008). *Ueberlegungen zu einer Theorie biographischer Entwicklung aus pfadtheoretischer Perspektive*. In: von Felden, H. (Hg.): *Aktuelle Perspektiven der erziehungswissenschaftlichen Biographieforschung. Theoretische Ueberlegungen und methodische Differenzierungen*. Wiesbaden, 47-68.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laserfeld, E. (1995). *Radical Constructivism: A Way of Knowing and Learning*. London: Routledge, Taylor&Francis group.
- Harvighurst, R. L.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David McKay.
- Horkheimer, M. (1972). *Gesellschaft im Uebergang*, Frankfurt a. M., Fischer, 36-59.
- Jacobs, H. A. (1996). Gender inequality and higher edu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53-185.
- Jenkins, S. R. (1989). Longitudinal predication of women's careers: psychological behavior and social-structural influences. *Journal of Vacation Behavior*, 34, 204-235.
- Kymlica, W. (2006).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외(공역, 2001), 서울: 동명사.
- Langdale, S., & Lyons, N. (1985). 사회심리학적 발달이론. Garz, 이효선 역 (1999), 한울아카데미.
- Marcia, J. E., Waterman, A. S., Matteson, D. R., Archer, S. L., & Orlofsky, J. L. (1993). *Ego-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1-21, New York: Springer-Verlag.
- Martine, Abdallah-Pretceille (2006). Interculturalism as a paradigm for thinking about diversity, *Intercultural Education*, 17(5). 475 - 483.
- Mitchell, K. (1970). *Sexual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Nassehi, Armin (1999). *Das stablharte Gebaeuse der Zugehoerigkeit. Unschaerfen. im Diskurs um die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Differenzierungsfolgen, Westdeutscher Verlag, 203-225.
- Norlin, J. M., & Chess, W. A. (1997).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Social systems theory*(3rd ed.). Boston: Allyn and Bacon.
- Orcutt, M. A., & Walsh, M. B. (1997). Traditionality and congruence of career aspirations for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1.
- Schkade, D. A., & Kahneman, D. (1998). Does living in California make people happy? A focusing illusion of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 science, 9, 340-346.
- Schütze, F. (1981). Prozeßstrukturen des Lebensablaufs. In: Matthes, J./ Arno P./ Manfred S.(Hg.). *Biographie in handlung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Nürnberg, 67-156.
- Schütze, F. (1984). *Kognitive Figuren des autobiographischen Stegreiferzählens*. In, Kohli, Martin/ Günther Robert(Hg.). *Biographie und soziale Wirklichkeit*. Stuttgart, 78-117.
- Schütze, F. (1987). *Das narrative Interview in Interaktionsfeldstudien I*. Studienbrief der Fern-Universität Hagen.
- Schütze, F. (1989). *Kollektive Verlaufskurve oder kollektiver Wandlungsprozeß. Dimensionen des Vergleichs von Kriegserfahrungen amerikanischer und deutscher Soldaten im Zweiten Weltkrieg*. In: BIOS, Heft 1. 31-109.
- Schütze, F. (1994). *Das Paradoxe in Felix Leben als Ausdruck eines wilden Wandlungsprozesses*. In: Koller, H.-Ch./ Kokemohr, R. (eds.): *Lebensgeschichte als Text: zur biographischen Artikulation problematischer Bildungsprozesse*. Weinheim, 13-60.
- Schütze, F. (1999). *Verlaufskurven des Erleidens als Forschungsgegenstand der interpretativen Soziologie*. In: Krueger, H./Marotzki, W.(ed.). *Handbuch erziehungswissenschaftliche Biographieforschung*. Opladen, 191-223.
- Stephen Castles., & Mark Miller. (1996). *The Age of Migration*. London. Macmillan Press Ltd.
- Sydow, J., Schreyögg, G. & Koch, J. (2005). Organizational paths: Path dependency and beyond. *Paper presented to the 21th EGOS colloquium*, June 30 - July 2, Berlin.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Weick, K. E. (1979).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ing*, second edi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1 차원고접수 : 2010. 01. 08.
수정원고접수 : 2010. 03. 01.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8.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Biographical Development of Migrant Workers in Korea

Lee, Hyo-Seon

Kangnam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This study, targeting people who have come to Korea over five years ago as young migrant workers, aimed to examine which characteristics of these migrant laborers have experienced are as a turning point, and what significance it has in terms of biographical development in young adulthood.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coping strategies that these migrant workers have us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they faced while adapting to a new environment and culture. To this end, the data collection for this study was carried out using F. Schütze's narrative interview method and also consisted of an in-depth analysis through four steps. Two cases out of nine that show the progress of biographical development well in early adulthood, were reconstructed through the analysis steps. During the period of study, the researcher constructed the ways in which the individuals described their lives and all cases were reconstructed using the minimum and maximum comparison. It is possible to look deeper into the aspects regarding the identity of each individual. In the cases of A and B, they displayed active adaptation behaviors at a superficial level but did not raise any question in terms of their beliefs or values concerning the culture of their homeland and the new culture they have experienced since migrating to Korea. In conclusion, the migrant workers studied here were engaged in acts purely for adaptation. Rather than acquiring an understanding of them, the research targets merely seek to adjust themselves to the environment in order to live in Korean society. From the macro perspective, it is possible to shed light on their lives in the sense that they are migrant workers living in Korea. Although Korea seeks to become a nation of many races and nationalities where multicultural human rights are realized under the banner of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ironically unable to encompass the various members of society that form a 'multicultural society.' Currently, laws and policy regarding multiculturalism are limited to those who have acquired Korean nationality, which, in actuality, means that foreign workers as well as people in other various categories are excluded from institutional protection and benefits. In short,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is still that of firmly establishing Korea's nationality and uniqueness. Because multiculturalism is basically a concept that premises the existence of each individual culture that exists co-independently, it is inevitable that we continually recognize the differences and dissimilarities of each individual culture. Multicultural discourse in Korea should not remain at the level of merely discovering and recognizing these differences but, rather, should grow into a more active and mature discourse. Unlik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which pursues variety, this is the concept of interculturalism that highlights integration and the process of an individual and society interconnecting. Therefore, more discussion and debate is necessary in order to reach a social consensus and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ism is required.

Key words : Migrant workers, Qualitative study, Biography research, Biographical development, Interculturalism. Case study.